

USTR 제재안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두 번째 사례 등장

조선 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신조선가치수 187.34p로 0.09p 하락

① 신조선가치수는 또 소수점 하락하지만, 한국 조선은 대규모 수주소식이 있었고, 신조선가도 양호합니다.

▶ 한국 탱커 수주 2건. 신조선가 상승 확인

② HD현대삼호는 앙골라 Sonangol로부터 수에즈막스 2척을 수주합니다.

동 조선사의 계약 선가는 2024년 1월에 DHT의 86.2백만달러에서 87.6백만달러로 올랐습니다.

③ 한화오션은 그리스 Capital Group으로부터 VLCC 2척을 수주합니다.

동 조선사의 계약선가는 2024년 2월에 DHT와의 128.1백만달러에서 129백만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둘다 원화로는 계약 선가가 10% 이상 올랐습니다.

▶ LNG 수주. 신조선가 양호

④ HD현대삼호는 영국 Purus로부터 2027년 12월 납기, 1척을, 261.8백만달러에 수주합니다. 180k-CBM이어서 클락슨의 174k-CBM의 255백만달러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측은 좋다는 안내입니다.

▶ 컨테이너. 미국의 중국 조선업 견제 수혜 확인

지난주에는 ExxonMobil이 중국에 발주하려던 LNGBV 2척을 보류했고

⑤ Marinakis의 Capital Group은 미국 정책 때문(으로 추정)인지, HD현대삼호에 8,800-TEU[LNG D/F] 6척, HD현대미포에 2,800-TEU 8척, 1,800-TEU 6척을 발주 예정입니다. 신조선가는 8,800-TEU가 클락슨 130백만달러에 이번 계약은 140백만달러, 2,800-TEU가 클락슨 44백만달러에 55백만달러, 1,800-TEU는 클락슨 32.5백만달러에 45백만달러로 아주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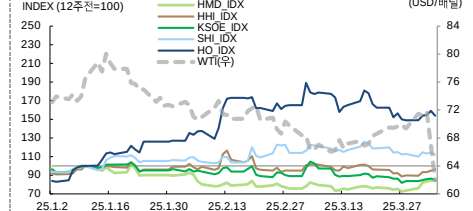
⑥ 양밍이 8,000-TEU 3척, 15,000-TEU 7척 발주를 위해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BIG3와 일본 이마바리, 대만 CSBC가 참여합니다. 대만 정부 지분 보유 해운사로 중국에 발주 이력이 없습니다.

▶ figure: 달러로도 오히려 탱커 선가 오름. 원화로는 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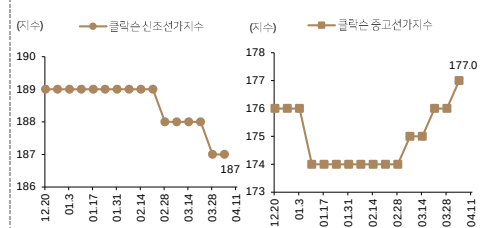
공사일자	조선사	발주처	선종	척수	신조선가 계약규모 (백만달러)	인도	환율	신조선가 (십억원)	상승률 (%)
24.02.23	한화오션	DHT	VLCC	2	128.1	256	26.11	1,335.0	171.0
24.02.28	HD현대삼호	DHT	VLCC	2	129.1	258	26.12	1,331.4	172.0
25.04.01	한화오션	Marinakis의 Capital Group	VLCC	3	129.0	258	27.05	1,466.5	189.2 10.6%
24.03.04	삼성중공업	MOL +ExxonMobil	서울탱커	1	149.0	149	26.08	1,334.0	198.8
25.03.17	삼성중공업	TEN	서울탱커	9	148.1	1,333	28.12	1,451.9	215.1 8.2%
24.01.31	HD현대삼호	DHT	수에즈막스	2	86.2	172	26.07	1,337.0	115.2
25.04.03	HD현대삼호	Sonangol	수에즈막스	2	87.6	175	27.05	1,470.6	128.8 11.8%

모니터링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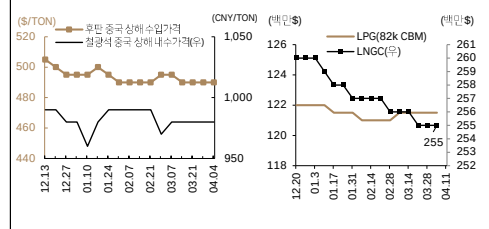
▶ 조선주 추가



▶ 선가치수



▶ 후반. 주요 선종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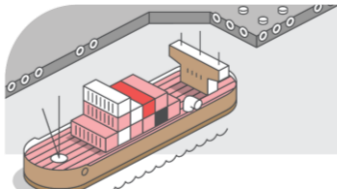
▶ 수빅 캐파 확대! USTR의 중국 견제시점에?

⑦ HD한국조선해양이 장기 임대한 아길라 수빅이 115k-DWT PC선 시장에 데뷔합니다. 기존 단골 Cido로부터 4척, Nissen Kaiun으로부터 2+2척을 수주한 것으로 전하며, 클락슨에도 4척의 수주건이 입력되었고, HD현대마린엔진도 HD한국조선해양 수주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HD현대는 인도 등에서도 비슷한 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는 전합니다. 현대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잘 운영되어, 중국 조선사들을 압박하는 경쟁력 있는 야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주시 뉴스

✓ 수주, ? 수주설

	주주	04월1주 주시뉴스	주주	03월5주 주시뉴스
선가 & USTR	✔	▶ 신조선가치수 벌크와 탱커 하락으로 소수점 하락. 중고선가치수는 상승 ▲ 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 수빅(Agila Subic Shipyard)의 건조 능력 확장. 탱커 4~6척 수주 ▲ 미국 Jones Act 개정 가능성 논의 ▽ 2025년 1분기 중고선 매매(S&P) 시장 거래량 전년대비 약 30% 급감 ▷ Evangelos Marinakis, 미국 항만요금 도입 시 미국 시장 철수 시사		03월5주 주시뉴스 ▶ 신조선가치수 187P로 4주만에 또 하락 ▽ 트럼프의 항만 요금 압박에 중국은 "맞불도 가능" ▲ 독일 선사 F Laeisz CEO는 포럼에서 미국의 중국산 선박 제재, 청의적 우회 가능 방법 제시 △ 미국의 중국산 선박 대상 항만세, 컨테이너 선사 간 상황 다름 △ 미국 항만세 위협 속, 비중국산 선박 프리미엄 형성 조짐
그린십	?	▲ Trafigura, 암모니아 Dual-Fuel 시스템에 대해 LR 인증 획득 ▲ Shell, Equinor, TotalEnergies 3사가 참여하는 Northern Lights CCS의 Ph2 FID 발표	?	▲ ExxonMobil 중국에 확보한 LNGBV 슬롯 보류 △ MIT는 HD한국조선해양 등과 글로벌 해운 산업 문제 해결 위한 컨소시엄 출범
LNG	✔	▲ 2025년 1분기, LNG선보다 LNGBV 발주가 더 많았음 ▲ 영국 Purus Marine은 HD현대삼호에 180,000-CBM LNG선 1척을 발주	?	△ 대만 CPC는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 참여
가스선				
컨테이너선	?	▲ Yang Ming, 최대 10척 컨테이너선 신조 입찰 시작. 한국 BIG3, Imabari, 대만 CSBC ✔ 그리스 Marinakis의 Capital Maritime → HD한국조선해양에 20척(16억달러) 컨테이너선		▷ Evergreen, 일본 장기 용선 컨테이너선 10척 인수에 10억달러 이상 투자
탱커	✔	▲ 한화오션, 그리스 Marinakis의 Capital Group으로부터 VLCC 2척 수주 ✔ HD현대삼호는 앙골라 Sonangol로부터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2척 수주		△ TEN 15.4억달러 서울탱커 신조 발주 후, 노후선 매각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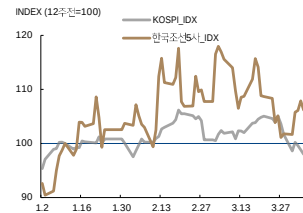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04.06 [76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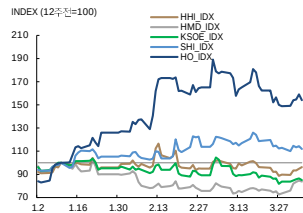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Peer Group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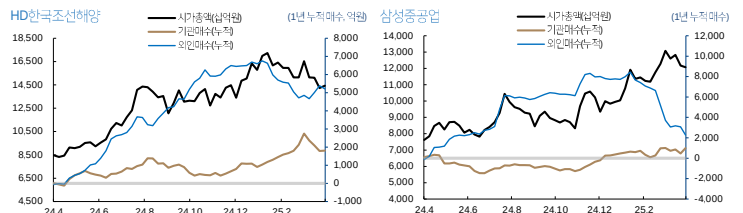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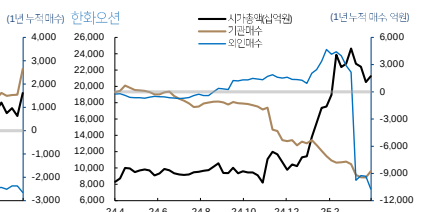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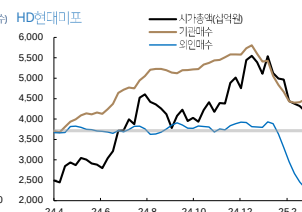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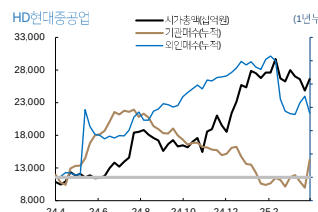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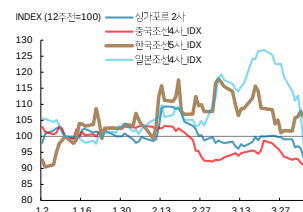
▶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조선 수급



▶ 한/중/일/싱 조선주 주가 비교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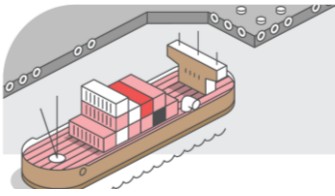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지수	WTI		-10.6%	-6.5%	-12.2%		-29%	-37%
	CRB INDEX		-6.0%	-4.3%	-1.0%		-3%	-3%

조선사								
한국조선	HD한국조선해양	9,878	1.5%	18.7%	11.7%		71%	148%
	HD현대중공업	18,222	7.1%	-5.4%	4.4%		147%	144%
	삼성중공업	8,261	-0.8%	-8.5%	21.3%		58%	152%
	한화오션	14,529	3.4%	13.9%	87.8%		55%	228%
	HD현대미포	3,173	3.8%	1.8%	14.0%		86%	57%
싱가포르	KEPPEL	8,961	-3.8%	-2.2%	-2.9%		-9%	59%
중국조선	CSSC	18,639	-1.4%	-0.2%	16.7%		-20%	77%
	CSIC	13,276	-1.6%	1.4%	12.9%		-9%	10%
	CSSC OMEC	3,339	-1.3%	0.7%	-5.8%		-14%	39%
	YANGZIJIANG	6,375	-8.4%	10.0%	25.9%		15%	161%
일본조선	NAMURA SB	867	22.0%	23.6%	4.6%		2%	426%
	MITSUI ES	1,013	17.2%	24.3%	22.4%		-15%	321%
	KAWASAKI HI	8,469	21.0%	12.9%	-0.3%		59%	248%
	SUMITOMO HI	2,386	-9.3%	-6.9%	12.5%		-39%	7%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682	-1.4%	3.8%	4.6%		-6%	-12%

엔진 / 부품								
엔진	WARTSILA	9,848	-12.4%	-13.6%	12.2%		1%	76%
한국엔진	한화엔진	1,270	6.2%	-4.9%	18.9%		132%	217%
	STX엔진	318	-1.2%	22.6%	0.5%		57%	60%
	HD현대마린엔진	648	9.2%	10.5%	13.9%		117%	460%
기자재	한국카본	598	23.5%	3.6%	47.6%		55%	52%
	동성화인텍	491	11.4%	1.9%	57.8%		96%	127%
	세진중공업	269	1.8%	-18.3%	-18.3%		-1%	8%
	SK오션플랜트	547	4.7%	-15.6%	4.6%		-4%	-27%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1,917	32.2%	-20.5%	38.5%		-67%	51%
	SEADRILL	1,196	23.7%	-18.0%	47.4%		-64%	
	Valaris	2,100	25.1%	-13.0%	27.9%		-60%	55%
	ODFJELL SE-A SHS	569	17.8%	-15.6%	32.9%		-47%	53%
IOC+	ExxonMobil	452,746	11.4%	-1.0%	-2.0%		-14%	20%
	Shell	192,454	11.8%	-3.0%	4.0%		-10%	20%
	BP	76,884	14.9%	-9.2%	3.8%		-27%	5%
	TOTALenergies	132,170	10.4%	-5.2%	0.6%		-21%	38%
	Chevron	250,699	13.7%	-5.0%	-0.5%		-11%	6%
	ENI	45,060	-8.7%	-0.7%	0.8%		-16%	5%
ENG.	Equinor	65,510	-7.7%	3.5%	-2.1%		-11%	0%
	SBM	3,326	15.4%	-12.6%	1.6%		16%	20%
FEED.	TechnipFMC	10,582	19.3%	-5.2%	13.4%		-7%	20%
	SAIPEM	3,916	17.6%	-11.9%	28.8%		-20%	68%
	NOV	4,558	20.1%	-16.1%	17.3%		-42%	14%
	MODEC INC	1,745	-9.2%	-12.1%	13.1%		27%	55%
	WORLEY PARSONS	4,155	11.8%	-10.9%	-4.4%		-22%	5%

해운								
해운	MAERSK DC Equity	22,244	21.6%	-21.1%	20.3%		4%	53%
	SHIP FINANCE INTL LTD	1,049	1.7%	-17.0%	28.6%		-44%	5%
	CLARKSON PLC	1,276	7.3%	-26.4%	7.5%		-21%	5%
	EURONAV NV	1,762	6.3%	-11.7%	23.3%		-39%	11%
	GOLDEN OCEAN GROUP LTD	1,313	8.9%	-25.8%	30.0%		-49%	2%
	FRONTLINE LTD	2,856	4.3%	-18.7%	8.4%		-46%	3%
	NORDIC AMERICAN TANKERS LTD	461	2.3%	-10.5%	10.5%		-45%	2%
	KNOT OFFSHORE PARTNERS LP	221	-2.4%	17.3%	1.0%		25%	6%
	LPG BW Offshore	472	-6.8%	1.5%	7.3%		-2%	0%
	DORIAN LPG LTD	742	2.9%	-13.2%	25.4%		-51%	9%
EXMAR NV	EXMAR NV	752	-0.7%	0.7%	0.5%		-59%	12%



다올 선박

2025.04.06 [766호]

DAOL 다올투자증권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선, 전자공시 등)

▲ 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 수빅 조선소(Agila Subic Shipyard)의 건조 능력 확장

- 아래의 선가/CAPA 섹션 참고

▲ 영국 Purus Marine은 HD현대삼호에 180,000-CBM LNG선 1척을 발주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한화오션, 그리스 Marinakis의 Capital Group으로부터 VLCC 2척 수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HD현대삼호는 앙골라 Sonangol로부터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2척 수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그리스 Marinakis의 Capital Maritime → HD한국조선해양에 20척(16억달러) 컨테이너선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고

▲ Yang Ming, 최대 10척 컨테이너선 신조 입찰 시작. 한국 BIG3, Imabari, 대만 CSBC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고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㊸Hyundai Samho HI→Sonangol, TK(157k-DWT) 2척

-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㊸Hyundai Samho HI→Unknown(Puus), LNG(180k-CBM) 1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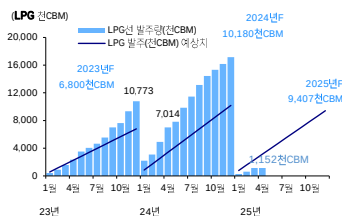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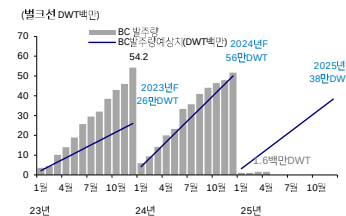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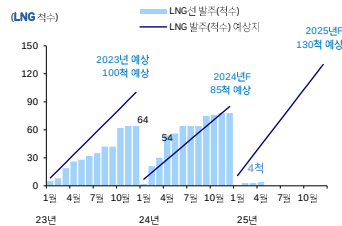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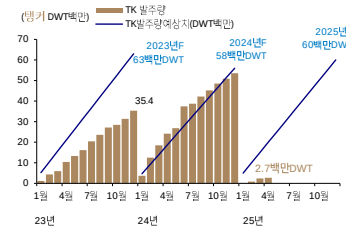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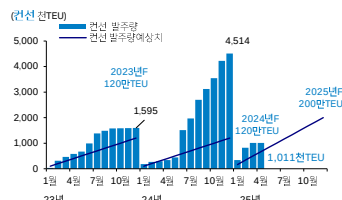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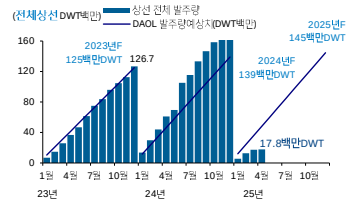
- 아래의 LNG 섹션 참조

㊸Hyundai Philippines→Unknown(Marinakis), TK(115k-DWT) 4척

-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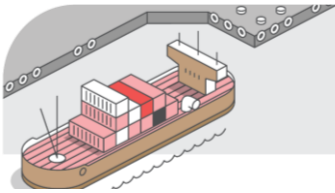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 만 & 해양은 뉴스/공시 기준

2025년 03월 2주										
대한민국	Hyundai HI (Ulsan)	25.02.28	아시아	MISC	LPG	98k cu.m.	2028	2		
	GSI Nansha	25.03.12	유럽	Peter Dohle	CONT	8k TEU	2028	2		
		25.02.28	유럽	Peter Dohle	CONT	8k TEU	2027-2028	3		
중국	Jiangnan SY Group	25.02.28	유럽	CMA CGM	CONT	18k TEU	2028-2029	12		
	Jiangsu Dajin HI	25.03.08	유럽	Oskar Wehr	BULK	6k DWT	2026-2027	4		
	Jiangsu Zhenjiang SY	25.01.01	아시아	Sinarmas LDA	OFF-기타	#VALUE!	2026	4		
	Taizhou Kouan SB	25.03.06	중국	Xingtong Shipping	GASC	13k DWT	2026-2027	2		
				XT-IMC	GASC	14k DWT	2026	2		
	Yangzhou Guoyu SB	25.01.16	중국	Hainan Huige	CONT	5k TEU	2026-2027	2		
		25.02.01	중국	Shanghai Changshun	CONT	5k TEU	2026-2027	4		
	CMJL (Yangzhou)	25.03.07	중국	Rongtuo Shipping	GASC	26k DWT	2027-2028	2		
2025년 03월 3주										
대한민국	Samsung HI	25.03.17	일본	MOL Energia	LPG	100k cu.m.	2027-2028	2		
		25.03.14	유럽	Tsakos Energy Nav	TK	158k DWT	2027-2028	9		
중국	Jiangsu Runyang	25.02.28	중국	HICAL	OTHERS		2027	1		
	Zhejiang Tenglong	25.01.01	중국	Unknown Chinese	OTHERS		2026	1		
	Chongqing Zhongjiang	25.01.01	중국	Chongqing Logistics	BULK	10k DWT	2026	1		
	Namur Shipbuilding	25.01.01	북미	Foremost Maritime	BULK	182k DWT	2027	2		
2025년 03월 4주										
일본	MHI Shimonoseki	25.03.21	일본	Toyofuji Shipping	PCTC	2k Cars	2029	1		
				Toyofuji/Nitoku	PCTC	2k Cars	2028	1		
				Toyofuji/Miyazaki	PCTC	2k Cars	2028	1		
	Naikai Zosen Setoda	25.03.17	아시아	Wisdom Marine Group	BULK	39k DWT	2027	2		
	Koike Shipbuilding	25.01.01	일본	Nakamoto Kaiun	BULK	1k DWT	2026	1		
2025년 04월 1주										
대한민국	Hyundai Samho HI	25.04.02	Unknown	Unknown	LNG	180k cu.m.	2027	1		
		25.04.01	아프리카	Sonangol	TK	157k DWT	2027	2		
	Hyundai Philippines	24.09.01	Unknown	Unknown	TK	115k DWT	2027	1		
	GSI Nansha	25.03.28	중국	COSCO Shipping Spec	OFF-기타	70k DWT	2027	1		
중국	Jiangsu Qinfeng	25.03.26	중국	Jiangsu Lvhang Log	CONT	1k TEU	2026	1		
	Jingjiang Nanyang	25.03.14	중국	YZJ Financial	PTK	50k DWT	2027-2028	4		
일본	Haidong Shipyard	25.01.01	중국	Zhejiang Yunxiang	GASC	7k DWT	2026	2		
	Imabari SB Hiroshima	25.03.28	일본	Shoei Kisen Kaisha	CONT	8k TEU	2028-2029	3		



선가, 실적, 캐파

▷ 신조선가치수 벌크와 탱커 하락으로 소수점 하락, 중고선가치수는 상승

신조선가치수는 또 187.34p로 0.09p 하락. 벌크와 탱커 하락
파나막스, 헨디막스 벌크선이 -1.4% 하락했고, 수에즈막스 탱커가 86.5백만달러로 -1.0백만달러 하락했고, 아프리카막스도 72.5백만달러로 0.5백만달러 하락
중고선가치수는 177p로 또 2주만에 1p 상승

▲ 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 수빅 조선소(Agila Subic Shipyard)의 건조 능력 확장

해당 조선소는 과거 한진중공업 필리핀 법인이 운영하던 부지
탱커 건조를 위한 설비 업그레이드 진행, 아프리카막스급 PC선부터 건조 시작 예정
이번 확장은 미국의 중국 조선산업 견제 정책에 따라 중국 수주 감소 분위기 속에 추진됨
수빅 조선소에서의 탱커 건조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
현대필리핀에 발주한 선사는 Cido Shipping이 LR2급 PC선 4척 확장 발주했고
Nissen Kaiun도 2척 확장 + 2척 옵션이며
클락스에는 4척이 발주처 Unknown으로 가입됨
2027~2028년 인도 예정의 신조선가는 척당 73~74백만달러
HD현대중공업은 수빅 조선소에서 연 4척 건조 계획, 이후 인력 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생산량 확대 전망
브로커 없이 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고, 모두 HD한국조선해양의 기존 장기 고객
수빅 조선소 재가동에는 대규모 투자와 인력 확보가 필요, 단기 대응 아닌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것임
HD현대는 수빅 조선소에서 품력 구조물·선체 블록 제작, 해군함정 정비 등 다목적 활용 중이며,
10년간 약 5.5억달러 투자 계획, 3~5년 내 1만 명 고용 목표
HD한국조선해양은 한국인 감독 인력도 수빅에 파견 중, 과거 한진 시절 최대 3.4만 이상 근무한 인력 기반 활용 가능
업계는 필리핀의 낮은 인건비로 인해 수빅 조선소 확장이 한국 중형 조선소(DH조선 등)에 경쟁 압박이 될 것으로 분석
HD현대, 인도 타밀나두 지역에 조선소도 설립 가능성도 검토 중 (2월에 현지 L&T 조선소와 논의)

USTR의 중국 조선업 제재 특집

▲ 그리스 Marinakis의 Capital Maritime → HD한국조선해양에 20척, 16억달러 컨테이너선 발주 예정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조

▲ 미국 Jones Act 개정 가능성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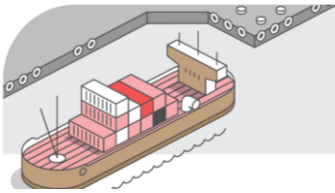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요금 부과를 추진하면서, 일부 선사 대표들이 100년 넘는 미국 연안운송법(Jones Act)의 개정 가능성을 언급
Navios Maritime Partners 부회장 Ted Petrone는 "Jones Act의 일부 수정을 통해 미국 조선업 지원과 선박 투자 비용 상승의 균형 잡을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 제기
International Seaways CEO Lois Zabrocky도 단기적으로 미국 해운력을 강화할 방안으로 법 개정에 동의
Jones Act는 1920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 항만 간 운송에 투입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 및 운항해야 함
그러나 미국 조선업 쇠퇴와 상선 감소로 현실과 괴리가 발생
Stena Bulk CEO Erik Hanelle는 미국산 수에즈막스 탱커는 500백만달러, 한국산 예코 디자인 탱커는 83백만달러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
Stena는 Tanker Security Program(미국 군수용 유류 운송 프로그램)에 중국산 선박 3척을 운용 중이며, 우리 외에도 타 선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
질문에 패널 대부분은 "지금 중국에서 선박을 짓지는 않을 것"이라 답변
한 선사만 "선박 인도 시점에는 이슈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입장을 제시
Stena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지만 가격이 문제"라고 발언
Ardmore, Tsakos Energy, d'Amico International 등도 각각 중국 조선소 이용에 회의적이거나 중립적 태도

▽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대중국 관세 발표에 따라 아시아 해운주 급락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54%의 관세 부과 결정
기본 10% + 중국 전용 24% 추가 관세로 총 34%,
기본 10% 관세는 4월 5일, 전체 34% 관세는 4월 9일부터 발효 예정
상하이증권거래소의 Cosco Shipping A주 CNY 14.60 → CNY 14.25 (-2.4%)
Cosco Shipping Energy Transportation CNY 11.19 → CNY 11.03 (-1.43%)
홍콩증권거래소의 Cosco Shipping H주 HKD 12.54 → HKD 11.90 (-5.1%)
Orient Overseas Line HKD 118 → HKD 114.40 (-3.05%)
일본 해운주도 타격. 도쿄증권거래소의 NYK ¥4,911 → ¥4,693 (-4.4%)
Mitsui OSK Lines ¥5,185 → ¥4,954 (-4.5%)
한국 해운주도 현대상선(HMM) KRW 20,550 → KRW 19,900 (-3.2%)
팬오션 KRW 3,390 → KRW 3,300 (-2.6%)
대만 증시는 공휴일로 휴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을 너무 많이 이용했다"며 이번 조치는 "터프 러브(tough love)"라고 표현함

▷ Evangelos Marinakis, 미국 항만요금 도입 시 미국 시장 철수 시사

그리스 선주 Evangelos Marinakis는 Capital Link 국제 해운 포럼에서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항만 요금을 부과할 경우, 선대 140척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언
요금에 계속되는 한 미국을 피해서 운항할 것이라고 강조
Marinakis는 선주들이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1) 생산능력, 2) 가격 경쟁력, 3) 품질 개선 등을 꼽음
일부 조선소는 품질 면에서 한국·일본과 근접한 수준이라며 중국 조선 산업을 옹호
항후 시장 양극화 전망. 미국 거래를 지속하는 선주와 회피하는 선주로 시장 양분화될 것으로 예측
그리고,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Marinakis는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가 효과 없었다고 평가하며,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중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유럽은 해당 정제유를 고가에 역수입하며, 실질적으로 유럽 소비자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업계에 대해서는 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 강조
현재의 지정학·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유럽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는 지역 중 하나*라고 단언



▽ 2025년 1분기 중고선 매매(S&P) 시장 거래량 전년대비 약 30% 급감

Allied Shipbroking은 2025년 1분기에 365척 거래되어, 2024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고 집계
Clarksons도 2025년 1분기 289건 매매 완료로, 전년동기의 607건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
탱커 거래는 상대적으로 견조(99건, 전년 동기 143건), 벌크선 거래는 237건 → 168건으로 축소
특히 케이프사이즈급 벌크선 거래량 감소 두드러짐
중고선 매수자들은 중년 선박에는 여전히 관심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중해진 태도
미국의 중국산 선박 항만요금 부과 검토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산 선박 기피하고, 일본산 선박 선호 움직임
중국산 선박 보유자들이 협상에서 더 큰 압박 받는 중
가격 기준(벤치마크) 하향 조정 가능성 제기
Clarksons Securities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한국·일본산 선박보다 낮은 평가 받아
품질, 설계, 연료 효율성 차이로 인해 중국산 선박은 1~2년 더 오래된 선박 수준의 할인 가치를 적용 중
중국산 친환경 VLCC는 약 7%, 비친환경 VLCC는 약 10% 할인된 가치로 평가됨
미국 시장에서는 비()중국산 선박이 더 선호될 가능성 커짐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 Trafigra, 암모니아 Dual-Fuel 시스템에 대해 LR 인증 획득

스위스 Trafigra가 발주한 MGC에 적용된 암모니아 D/F 시스템이 Lloyd's Register(LR)로부터 설계 승인 및 안전성 인증 획득
해당 프로젝트는 LR과 Trafigra의 공동 개발(JDP)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기술 평가 및 국제 규정 기준에 적합한 안전성 검토 완료
Trafigra는 HD현대미포에 45,000-cbm MGC 4척을 WinGD 암모니아 D/F 엔진 및 Alfa Laval의 Ammonia Release Mitigation System 장착 조건으로 발주
LPG 및 암모니아 겸용 운방선으로 설계되었으며, 2028년 인도 예정
Trafigra는 암모니아 D/F 시스템이 특수 선박 외 다양한 선종으로 확대 가능성 기대하며
이번 선박 발주가 저탄소 연료 수요를 자극하는 '시장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
LR 가스 부문 총괄 Panos Mitrou, "해운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체 연료 채택과 기술 혁신 지원" 강조
Trafigra 해운부문 대표는 EU의 ETS 및 FuelEU Maritime 규제가 이번 선박 발주에 결정적 역할을했다고 언급
대신 IMO에게는 해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연료 기준과 간단한 과정금 체계 도입 요구

▲ 2025년 1분기, LNG선보다 LNGBV 발주가 더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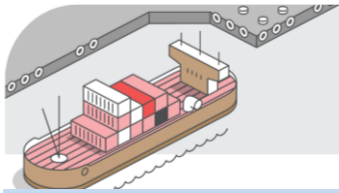
1~3월 사이 최소 LNGBV 10척 발주, 이는 2024년 전체 발주량 16척에 육박하는 수치
D/F 선박 증가와 LNG 연료 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움직임
1) 그리스 Evalend Shipping가 HD현대미포조선에 18,000-CBM LNGBV 4척 발주(척당 93백만달러)
2) H-Line해운도 18,000-CBM LNGBV 1척 발주
3) Sirius Shipping이 Gasum용 7,800-CBM LNGBV 1척 발주
4) SeaKapital, Singfar International Energy도 각각 20,000-CBM LNGBV 2척 발주
추가 발주 파이프라인은
5) Shell: LNGBV 최대 4척 발주 임할 마무리 예정이며
6) 벨기에 선사도 LNGBV 1척 확정 단계
2030년까지 LNG 연료선박 1,200척 이상 운영 예상도 있고, Shell은 2,000척 이상 전망
Shell은 2030년까지 해상 연료용 LNG 수요가 연간 1,600만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올해 1분기에 같은 기간, 일반 LNG선 발주는 단 3척
Celsius Shipping의 일본계 장기용선에 따른 1척 계약과 Hanwha Shipping의 2척 발주
LNG선 신조선 시장은 최근 2년간 대규모 발주 이후 1분기 동안 거의 침묵
LNG선 신조선가는 약 255백만달러로 높은 수준 유지
시장 불확실성, 약세인 스팟 시장, 단기 시장 부진으로 선주들의 투기 발주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미국 Venture Global 최대 8척, 나) QatarEnergy 기존 128척 외에 12~20척 추가 발주 가능성,
다) TotalEnergies 주도 모잠비크 프로젝트의 한국 조선소 LNG선 슬롯 16개 예약 상태
라) Nigeria LNG의 슬롯 조기 문의를 진행 중
BRS는 향후 10년간 LNG선 241척 추가 필요 전망을 제시

▷ DNV, 1Q25에 대체 연료 추진 신조선 발주량 YoY 13% 감소

DNV의 Alternative Fuels Insight (AFI) platform에 따르면 2025년 1~3월 발주된 대체 연료 선박은 총 71척
신조선 잔고에서 대체 연료 선박 비중은 17.23%를 차지.
LNG 연료 추진선: 9.41%, 메탄올 연료 추진선: 5.08%, LPG 연료 추진선: 1.08%
나머지는 암모니아, 수소 대응 가능 선박
3월에는 25척이 발주되었는데,
메탄올 연료 선박 12척(크루즈선 3척, PCTC 3척, 오프쇼어 선박 1척, 벌크선 1척, 탱커 4척)으로 절반을 차지
LNG 연료 컨테이너선 7척, 암모니아 연료 탱커 2척, LPG 연료 선박 4척
DNV 해사부 탈탄소화 책임자는 "3월은 대체 연료 선박 발주에서 다시 견고한 흐름을 보인 달"이라며 메탄올 선박 발주 증가를 주목
특히 선종을 가리지 않고 메탄올 수요가 고르게 증가
암모니아 선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기반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

▲ Shell, Equinor, TotalEnergies 3사가 참여하는 Northern Lights CCS의 Ph2 최종 투자 결정(FID) 발표

총 투자금액은 약 75억크로네(7억달러)
1단계 개발은 이미 완료되어, 2025년 중반부터 CO₂ 수용 예정
2단계에서는 CO₂ 저장 용량을 연간 150만톤 → 500만톤 이상으로 확대, 2028년 하반기 가동 목표
이번 결정은 스웨덴 Stockholm Exergi와의 연간 90만톤 생물기반 CO₂ 장기 계약(15년) 체결에 따른 것
Stockholm Exergi는 Northern Lights와 계약한 5번째 기업
기존 계약 기업체들은 Heidelberg Materials, Celsio(노르웨이), Yara(네덜란드), Orsted(덴마크)
Equinor CEO는 "대규모 탄소 포집·운송·저장(CCS) 밸류체인 구축의 중요한 진전"이라 강조
2단계 확장 범위는 육상 저장탱크, 펌프, 집안시설(제티), 주입정, CO₂ 운송선박 등 포함
Northern Lights 공동대표는 "이번 확장은 유럽 내 CCS 시장의 상업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음 단계"라고 평가
☞ HD현대미포와 세진중공업의 LCO2 시장도 확산기로 들어가려 합니다.
☞ 다만, 노던라이트1차의 소형 LCO2는 중국 DSIC가 건조했습니다.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N/A

▶ LNGc

▲ 영국 Purus Marine은 HD현대삼호에 180,000-CBM LNG선 1척을 발주

HD현대삼호는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선 1척 수주 공시
2027년 12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261.8백만달러로 공시
발주처는 영국 Purus Marine이며, 최신 설계가 적용된 180,000-CBM LNG선이며, 일반 174,000-CBM 255백만달러보다 높음
업계는 Purus Marine이 해당 선박의 용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며, 이는 투기발주가 아님을 시사
Purus Marine은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한 180,000-CBM LNG선 3척을 운용 중이며, 1척은 건조 중으로 곧 인도 예정
이 4척은 덴마크 Celsius Tankers와 공동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선박은 Purus Marine이 단독 소유하는 첫 LNG선

▶ 컨테이너선

▲ 그리스 Marinakis의 Capital Maritime → HD한국조선해양에 20척, 16억달러 컨테이너선 발주 예정

그리스 선주 Evangelos Marinakis가 이끄는 Capital Maritime, 한국 조선소에 약 16억달러 규모 컨테이너선 20척 발주 예정. 2027~2028년 인도물
미국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요금 부과에 따른 중국 조선소 회피 움직임 반영
HD현대삼호중공업에 LNG D/F 컨테이너선 8,800TEU급 6척(척당 140백만달러), 총 8억4,000만달러
장거리 항해를 위한 대형 LNG 연료탱크 탑재
HD현대대포조선에 2,800TEU급 8척(척당 55백만달러), 1,800TEU급 6척(척당 45백만달러), 총 7억1,000만달러, CO₂ 포집 시스템 탑재 가능성 고려한 설계
Capital 측은 중소형급 컨테이너선 부족에 주목하며 시장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점을 발주 배경으로 언급
기존에 중국 New Times Shipbuilding에 8,800TEU급 10척 발주했던 Capital은 4,300TEU 및 7,000TEU급 발주 협의도 중단 상태
이는 미국의 항만요금 도입 우려 때문으로 추정
Marinakis는 뉴욕 연설에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선사 및 화주들의 기피가 시장 양극화 및 비용 상승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한국에 발주
Capital은 앞서 한화오션에도 VLCC 2척을 척당 129백만달러에 발주한 바 있음
현재 Capital은 VLCC, 수에즈막스, 아프리카막스, PC선, 컨테이너선, LNG선, LPG선, LCO₂ 등 최소 80척 이상 선박을 건조 중

▲ Yang Ming, 최대 10척 컨테이너선 신조 입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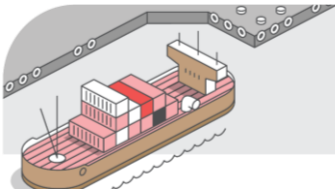
8,000TEU급 일반 추진 컨테이너선 3척, 15,000TEU급 LNG D/F 컨테이너선 최대 7척으로
입찰 마감은 4월 15일, 인도 목표 시기는 알려지지 않음
해당 발주는 작년 발표된 13척 신조 계획의 일환이며,
3척은 Shoen Kisen Kaisha 일본 Imabari조선소에서 건조 중(2028~2029 인도)인 메탄올 D/F를 최근 인수 완료
한국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일본 Imabari, 대만 CSBC가 참여 중
중국 조선소도 입찰 가능하나, Yang Ming은 대만 정부가 소유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로 지금까지 중국에서 선박 건조 이력 없음

▲ Maersk와 Hapag-Lloyd의 Gemini Cooperation가 출범 2개월 만에 높은 정시성 확보

2025년 2월 기준 정시율 94% 기록: 기존 THE Alliance, 2M 대비 약 2배
3월에도 정시성 지속 유지 중
Maersk 베테랑 Lars Mikael Jensen은 수년간 네트워크 설계에 참여했으며, 정시성 확보가 주요 목표였다고 설명
Gemini의 핵심 전략은 허브 항만 중심 운영, 셔틀(피더) 서비스로 비허브 항만 연결
아시아~유럽 루프에서 기항지 수 절반으로 축소. 지연 리스크 감소
첫 번째 Gemini 선박인 Gudrun Maersk(10,888TEU)가 3월 26일 로테르담 APM터미널에 입항
정시 입항의 경제적 효과는 막대함. 선박 지연으로 인한 재계획, 야근, 트럭 일정 재조정 등 막대한 비용 발생
Gemini는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터미널, 선사, 화주 모두에 비용 절감 효과 기대
APM Terminals Maasvlakte II(로테르담)은 Gemini 주요 허브 중 하나. 2026년 말까지 처리능력 540만TEU로 2배 확대 예정
순환 항차당 선박 수 16척, 주당 1척씩 단계 투입 중이며, 전체 네트워크 완전 가동은 7월 예상
전통적 직기항 모델과 Gemini 모델은 공존 가능, 경쟁보다는 상이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됨
Maersk는 "신규 네트워크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비용 절감 가능성 높음. 초기 반응 긍정적이며 성공 가능성 충분"하다고 평가

▽ 중국 Jiangsu Qinfeng 조선소, LNG D/F 컨테이너선 최대 6척 수주

Jiangsu Green Innovation Logistics는 1,138-TEU LNG D/F 1척 + 옵션 5척 수주
선박은 2026년 11월 인도 예정, 가격은 미공개
발주처는 기존 운용 선박이 없는 신생 기업으로 파악됨
Jiangsu Qinfeng은 Nan'an Hongdaxin을 위해 3,630-TEU 컨테이너선 2척을 2025~2026년 인도일정으로 건조 중
2024년 10월에는 Wuhan Innovation Jianghai Transportation으로부터 메탄올 D/F 벌크선(15k, 20k-DWT) 최대 16척 수주



▶ 탱커

▲ 한화오션, 그리스 Marinakis의 Capital Group으로부터 VLCC 2척 수주

한화오션은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2027년 5월 인도물, VLCC 2척을, 척당 129백만달러에 수주한 것으로 공지
해당 VLCC는 스크러버 탑재 사양, 옵션 1척 포함으로 보도
발주처는 그리스 선주 Evangelos Marinakis의 Capital Group으로 추정
한화오션의 2025년 세 번째 신조 계약
Evergreen Marine으로부터 LNG D/F 24,000TEU 컨테이너선 6척 수주하고,
Hanwha Shipping으로부터 174,000-cbm LNG선 2척을 수주
☞ 클락슨의 125백만달러보다 신조선가가 높습니다!

▲ HD현대삼호는 앙골라 Sonangol로부터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2척 수주

HD한국조선해양(HD현대삼호)은 바하마 선주로부터 157k-DWT 탱커 2척 수주 공시
2027년 5월 인도물의 신조선가는 87.6백만달러
발주처는 앙골라 Sonangol Shipping으로, 기존 선박 10척의 수에즈막스 선대 리뉴얼 차원에서 발주됨
이번 신조선가는 기존 선박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선박용 연료(MGO) 사양으로 계약됨
Clarksons에 따르면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신조선가는 작년 90백만달러 수준에서 최근 87.5백만달러로 하락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신조선 시장이 조용해졌고,
조선소들이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빈 슬롯을 채우는, 조기 인도 조건의 가격을 인하하는 사례 증가
직전 한국의 수에즈막스 계약은 그리스 Sun Enterprises가 DH조선에 발주한 건으로, 2027년 1분기 인도 예정, 척당 가격은 90백만달러 수준

▶ 오프쇼어/윈드/디펜스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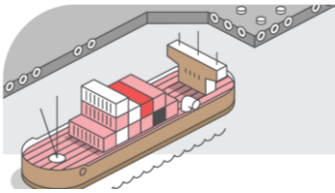
▶ 기타

▽ Cosmship, 트럼프의 화석연료 지지 정책에 만족

Cosmshi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 지지 정책을 환영
지난 4년간 Tier III/Phase III 기준의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약 20척 발주
최근엔 중국 Huanghai Shipbuilding에서 1,800TEU 컨테이너선 8척(기어드 4척 + 기어리스 4척) 건조 중이라고 추가 공개
대체 연료 기반 기술은 아직 상용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D/F 설계는 선박당 10백만~15백만달러 추가 비용 발생해서, 현재 운임 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평가
유럽의 탄소배출권 규제를 포함한 친환경 전환 비용은 대부분 선주가 부담하며,
운선자는 일부 저속운항이나 부품 지원 외엔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
IMO 규제는 과도하며 사실상 소비자 부담 전가로 이어진다고 비판. 특정 국가(선박·장비 제조국)의 IMO 영향력이 과도하다고 주장

△ K Line 신입 CEO 직원들에게 "animal spirit(야성적 본능)"을 강조. 사업 확장 다짐

중점 추진 분야는 PCTC, 벌크선, LNG선
지정학 리스크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 증가 언급. 중동, 우크라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주요 변수
탈탄소 전환 속도, 공급망 재편, 미국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입항료 도입 움직임 등도 영향을 미침
석탄·철광석 운송 부문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고객과의 관계 강화하고, 인도 및 중동 자원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 추진
PCTC 부문은 노선망 재정비, 친환경 선박 도입, 고중량 화물 수송 확대 등으로 수익 기반 강화
LNG선 부문은 동남아 및 인도 등 신시장 개척하며, 보유 LNG선 46척 → 2026년까지 65척으로 확대 계획
신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 노르웨이 Northern Lights 프로젝트에 Shell과 협력, 액화 CO₂ 운송선 3척 관리 개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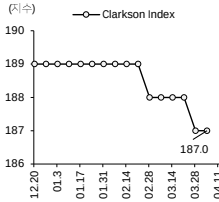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04.06 [76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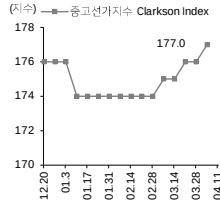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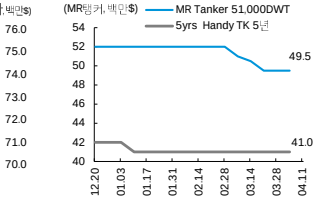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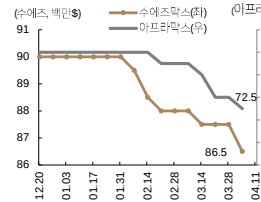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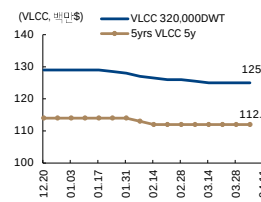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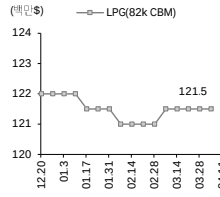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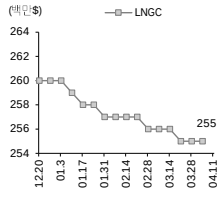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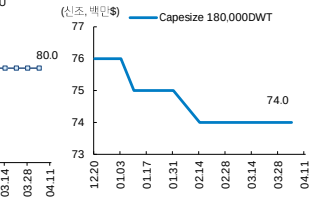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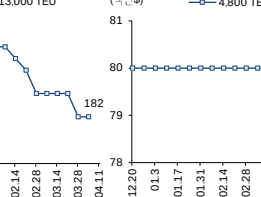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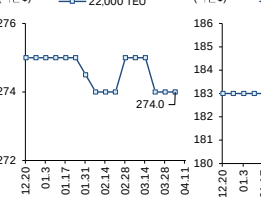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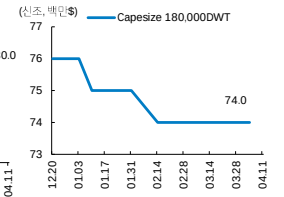
▶ 가스선들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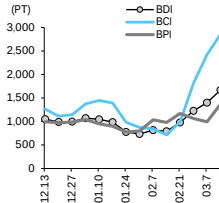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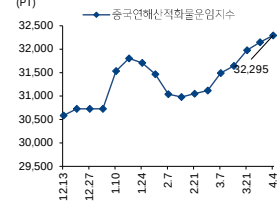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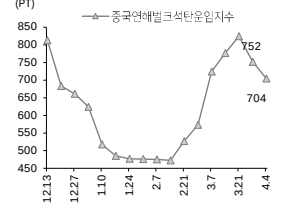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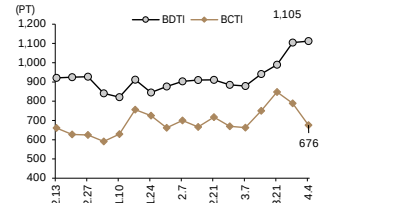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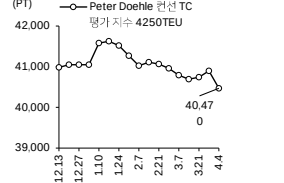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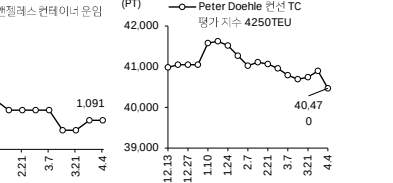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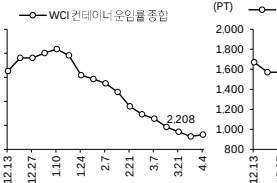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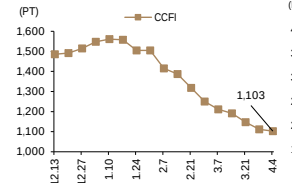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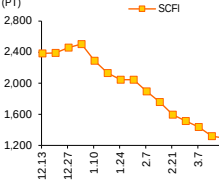
▶ 중국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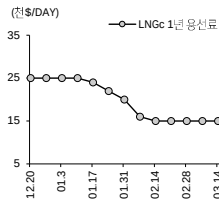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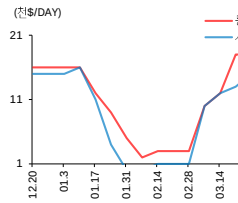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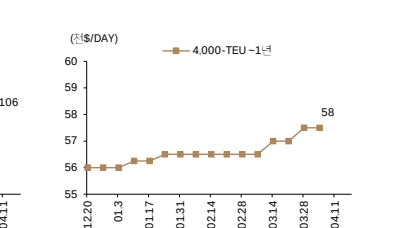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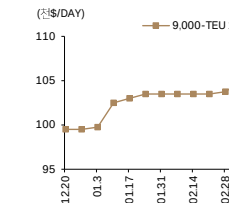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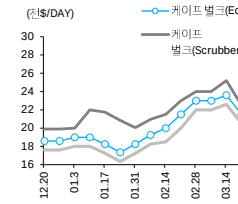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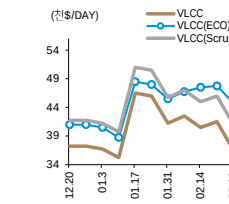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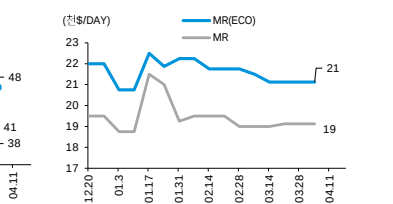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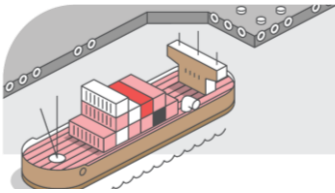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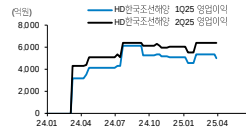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5.04.06 [76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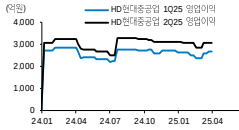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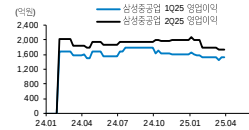
▶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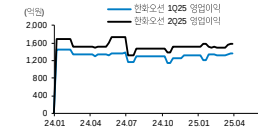
▶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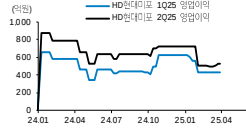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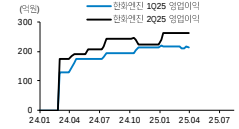
▶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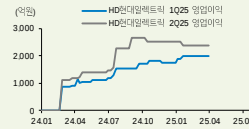
▶ HD현대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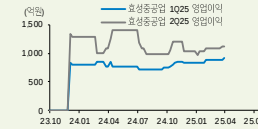
▶ 한화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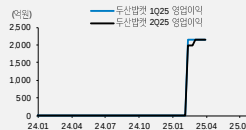
▶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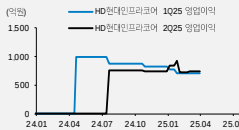
▶ 효성중공업



▶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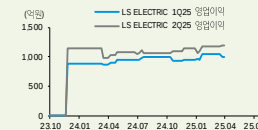
▶ HD현대인프라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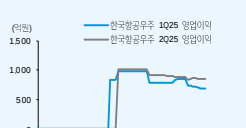
▶ HD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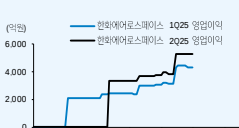
▶ LS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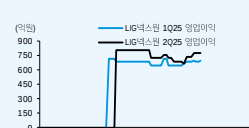
▶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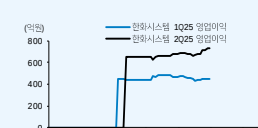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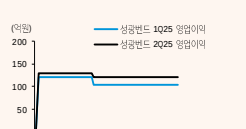
▶ LIG넥스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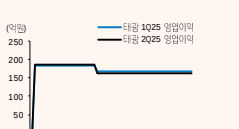
▶ 한화시스템



▶ 성광벤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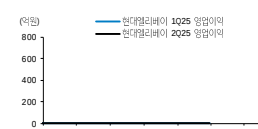
▶ 태광



▶ 현대로템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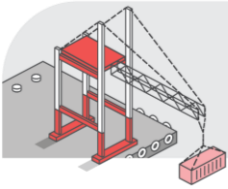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5 EPS(원)								Change(%)	2월전 대비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03.08	25.03.15	25.03.22	25.03.29		25.04.04	25.04.04		4주전 대비
조선	HD한국조선해양	22,305	23,384	23,428	23,960	23,410	23,033	23,033	22,971	22,960	-4%	2%	8.9	204,000
	HD현대중공업	9,764	9,984	9,983	10,026	10,598	10,656	10,656	10,405	10,427	4%	2%	28.8	300,000
	삼성중공업	617	611	614	604	577	577	563	544	546	10%	5%	25.1	13,720
	한화오션	1,469	1,369	1,327	1,468	1,451	1,451	1,538	1,551	1,573	7%	3%	44.0	69,300
	HD현대미포	6,007	6,315	6,384	5,996	5,679	5,679	5,655	5,655	5,557	-7%	2%	20.9	116,100
조기	한화엔진	902	914	917	937	963	897	946	953	961	3%	0%	23.1	22,250
	STX엔진	835	1,168	1,002	1,139	1,276	1,276	1,276	879	879	-3%	-31%	23.0	20,200
	HD현대마린엔지	1,030	1,032	992	892	572	756	756	1,241	1,219	-3%	-118%	22.9	27,900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8,822	7,881	7,788	7,847	6,953	6,953	6,953	6,953	7,128	-9%	2%	8.6	61,000
	HD현대인프라코어	1,299	1,013	1,008	949	760	760	760	760	760	20%	0%	10.4	7,920
	두산밥캣	7,425	5,982	5,876	5,907	5,799	5,799	5,799	5,799	5,799	-2%	0%	8.0	46,650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929	693	693	697	624	624	622	622	618	11%	1%	37.3	23,050
	HD현대일렉트릭	19,086	19,101	19,159	19,069	19,069	19,069	19,022	19,022	19,056	0%	0%	15.9	303,000
	LS ELECTRIC	10,413	9,951	9,870	10,655	10,636	10,636	10,708	10,695	10,695	0%	1%	16.0	171,500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3,032	3,075	3,083	3,050	2,826	2,826	2,817	2,819	2,804	-8%	1%	27.6	77,4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882	22,428	22,375	23,164	33,007	33,143	34,119	33,664	34,043	-7%	3%	20.6	702,000
	LIG넥스원	11,822	12,085	12,148	11,934	12,101	12,101	12,101	11,780	11,794	-1%	3%	21.8	257,500
	한화시스템	1,089	1,173	1,214	1,270	1,191	1,191	1,191	1,197	1,197	-6%	1%	27.9	33,350
	현대로템	4,446	4,899	4,899	4,818	5,857	5,935	5,946	6,012	6,106	27%	2%	16.2	98,800
피팅	현대엘리베이터	0	0	0	0	0	0	0	0	0	적지	적지	N/A	58,400
	성광벤드	1,819	2,045	2,045	2,096	2,005	2,005	1,968	1,968	1,967	-6%	2%	12.5	24,550
	태광	2,003	1,953	1,876	1,889	2,027	2,027	1,959	1,959	1,959	4%	3%	10.8	21,200
	하이룩코리아	2,956	3,058	3,448	3,741	3,644	3,644	3,644	3,644	3,644	-3%	0%	7.4	2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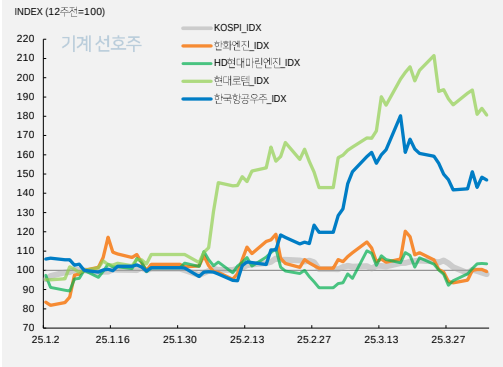
그룹	종목	2025 BPS(원)								ROE		2025 PBR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5.03.08	25.03.15	25.03.22	25.03.29	25.04.04	2025	2026	2025 PE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172,460	177,811	176,796	178,304	177,304	177,304	177,304	176,699	176,178	13%	17%	1.16
	HD현대중공업	73,137	73,669	73,340	73,482	73,729	73,776	73,776	73,012	72,949	14%	24%	4.11
	삼성중공업	6,211	6,219	6,222	6,152	5,903	5,903	5,917	5,962	5,956	9%	14%	2.30
	한화오션	15,706	15,445	15,338	16,110	16,256	16,256	16,440	16,569	16,699	9%	13%	4.15
	HD현대미포	56,394	57,093	57,043	57,023	56,417	56,417	56,500	56,490	56,474	10%	15%	2.06
조기	한화엔진	5,369	5,369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5,311	18%	25%	4.19
	STX엔진	11,445	11,008	10,979	10,979	10,979	10,979	10,979	10,979	10,979	8%	54%	2.38
	HD현대마린엔지	8,863	8,900	8,724	8,621	9,501	9,501	9,501	10,856	10,856	11%	30%	2.39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104,569	102,162	102,100	101,670	99,702	99,702	97,754	97,754	101,021	7%	9%	0.60
	두산밥캣	71,617	68,889	69,540	69,705	70,712	70,712	71,397	71,397	71,397	8%	9%	0.65
	HD현대인프라코어	11,467	10,709	10,782	10,750	10,311	10,311	10,311	10,311	10,311	7%	10%	0.77
발전/중전기	두산에너빌리티	12,915	12,502	12,502	12,492	12,207	12,207	12,168	12,168	12,555	5%	6%	1.84
	HD현대일렉트릭	60,089	59,636	59,855	57,223	57,223	57,223	56,618	56,618	56,429	34%	35%	5.37
	LS ELECTRIC	70,805	70,202	70,117	70,959	70,917	70,917	70,472	70,266	70,266	15%	18%	2.44
방산/기타	한국항공우주	20,599	20,843	20,841	20,642	19,998	19,998	20,029	20,018	20,013	14%	20%	3.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5,578	110,061	109,250	104,090	151,021	151,343	163,186	165,451	169,269	20%	22%	4.15
	LIG넥스원	64,974	64,909	65,065	64,514	64,518	64,518	64,787	64,787	65,002	21%	26%	4.55
	한화시스템	12,814	12,902	12,925	13,017	14,299	14,299	14,299	14,283	14,283	8%	9%	2.33
	현대로템	22,828	23,441	23,441	23,390	24,646	24,646	24,764	24,789	24,849	25%	25%	3.98
피팅	현대엘리베이터	0	0	0	0	0	0	0	0	0	N/A	N/A	N/A
	성광벤드	21,290	21,884	21,882	21,619	21,077	21,077	21,000	21,362	21,326	9%	11%	1.15
	태광	23,807	23,642	23,371	23,480	23,629	23,629	23,633	23,633	23,633	8%	9%	0.90
	하이룩코리아	35,659	37,219	38,102	38,403	37,821	37,821	37,176	37,176	37,176	10%	11%	0.73

출처: Dataguid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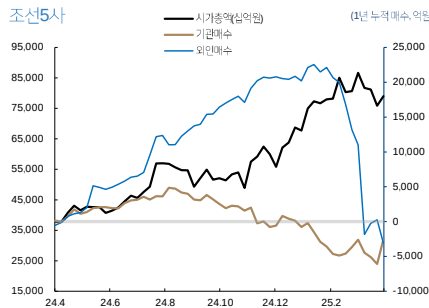
▶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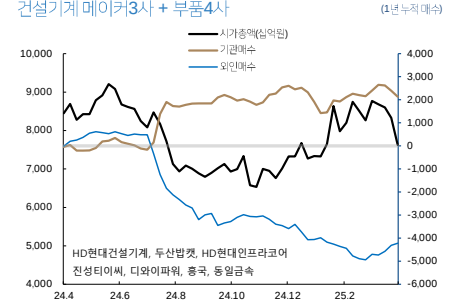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국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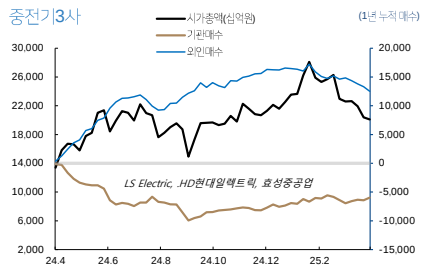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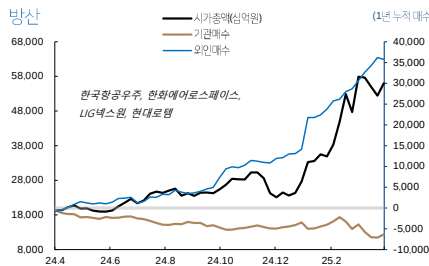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3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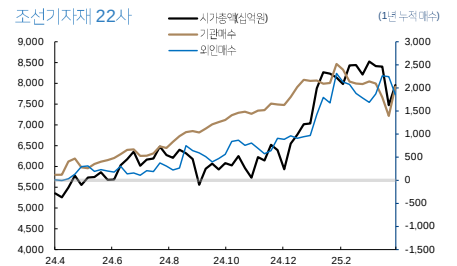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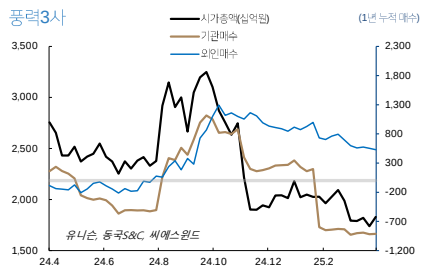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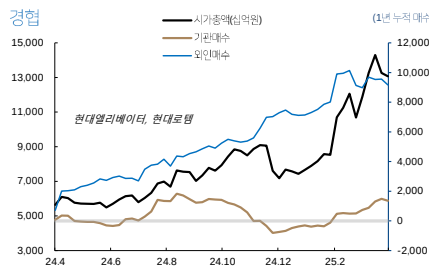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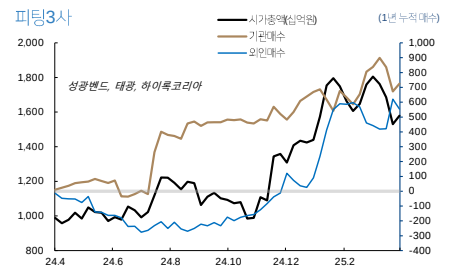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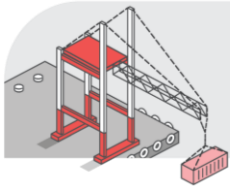


경협



파탕3사





다올 기계 ChartBook

2025.04.06 [766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글로벌 피어그룹 추가 흐름

대분류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HD현대건설기계	764	-9.1%	-10.9%	4.1%	10%	75%
	HD현대인프라코어	1,044	-9.2%	-13.6%	5.9%	-1%	33%
	두산밥캣	3,060	-8.7%	-1.9%	7.0%	-8%	19%
	CATERPILLAR	137,683	-2.6%	-4.9%	1.0%	-24%	33%
	KOMATSU	26,120	-9.8%	-8.0%	7.2%	-10%	39%
	HITACHI CM	5,253	-1.5%	-6.2%	1.6%	-24%	14%
중국	VOLVO	49,727	-5.6%	-2.1%	5.2%	-12%	71%
	SANY	22,228	-0.8%	-2.9%	4.9%	29%	-1%
	XCMG	14,003	0.3%	-6.3%	2.5%	33%	55%
소형	DEERE	116,670	-7.6%	-8.1%	0.0%	4%	3%
	CNH	13,379	-2.1%	-0.7%	5.0%	-16%	-28%
	TAKEUCHI	1,489	-6.3%	-2.4%	9.6%	-25%	75%
	TEREX	2,265	-1.2%	-2.5%	4.4%	-47%	5%
	SUMITOMO HI	2,386	-9.3%	-6.9%	2.5%	-39%	7%
	SANDVIK	23,216	-5.0%	-9.8%	7.1%	-23%	-4%
	UNITED RENTALS	36,885	-0.1%	-0.9%	1.2%	-20%	78%
건설기계 부품	디와이파워	89	-1.9%	-6.6%	6.3%	-11%	-17%
	진성티이씨	133	-5.6%	-6.8%	0.0%	-16%	-14%
	우림기계	44	-4.4%	-9.6%	2.8%	-19%	1%
	홍국	44	0.4%	-2.2%	1.1%	-5%	-22%
	동일금속	50	-0.6%	-4.2%	0.9%	-14%	-54%
	KUBOTA	12,680	-5.2%	-1.4%	2.2%	-35%	-29%
	가야바	926	-9.8%	-7.8%	7.9%	8%	94%
	Hengli	14,490	-3.2%	-7.2%	8.5%	5%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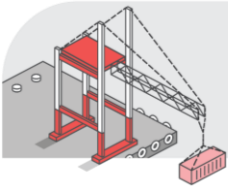
방위산업 / 항공부품							
방산/항공	한국항공우주	5,162	3.6%	11.4%	42.3%	55%	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893	11.4%	1.0%	120.1%	219%	1238%
	LIG넥스원	3,876	6.0%	-15.0%	24.7%	55%	266%
	한화시스템	4,311	4.4%	-1.5%	52.3%	94%	112%
	아스트	148	-7.5%	-32.3%	9.7%	-59%	-91%
	퍼스텍	113	-1.7%	-6.6%	15.9%	2%	-13%
	하이즈항공	18	3.5%	1.3%	-3.2%	-39%	-70%
	오르비텍	42	-5.9%	-14.2%	16.9%	-31%	-67%
방산/항공	Boeing	102,771	-21.2%	-16.3%	-24.4%	-25%	-22%
	Airbus	127,688	-11.6%	-15.0%	-5.4%	-12%	43%
방산	LOCKHEED MARTIN	101,371	-2.1%	-6.1%	-11.6%	-5%	-6%
	Raytheon Technologies	156,806	-10.8%	-9.4%	0.6%	15%	17%
	Northrop grumman	69,982	-5.2%	2.4%	3.0%	7%	5%
	GENERAL DYNAMICS	67,098	-7.1%	-4.9%	-6.1%	-15%	3%
항공	BOMBARDIER	5,356	-4.5%	-11.9%	-21.4%	22%	96%
	EMBRAER	7,719	-9.8%	-21.1%	14.4%	63%	253%
항공 부품	ROLLS ROYCE	72,105	-14.5%	-18.2%	14.0%	56%	599%
	SAFRAN	101,459	-11.2%	-16.3%	3.5%	6%	115%
	SPIRIT AERO	3,404	-16.4%	-14.1%	-14.6%	-16%	-33%
	TRIUMPH	1,942	-1.3%	-0.9%	33.8%	74%	5%
	MHI	54,472	-10.3%	4.1%	4.4%	78%	501%
	KHI	8,469	-21.0%	-12.9%	-0.3%	59%	248%
	FHI	12,079	-10.6%	-12.3%	-14.4%	-30%	34%
	IHI	10,274	-8.9%	-12.6%	5.4%	151%	244%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풍력	씨에스윈드	1,049	3.0%	-2.4%	-12.5%		-36%	-41%
	SK오션플랜트	547	4.7%	-15.6%	4.6%		-4%	-27%
	세진중공업	269	1.8%	-18.3%	-18.3%		-1%	8%
	유니슨	117	29.3%	21.0%	37.4%		-4%	-56%
	동국S&C	86	6.0%	-1.2%	-1.4%		-30%	-63%
	태웅	211	9.8%	8.7%	34.7%		-21%	23%
	VESTAS	12,892	-13.3%	-16.0%	-12.2%		-52%	-59%
	GOLDWIND	4,698	-2.6%	-0.9%	-14.5%		13%	-32%
	NORDEX	3,715	-3.2%	-4.2%	25.9%		20%	-9%

중전기	LS Electric	3,520	-4.5%	-33.0%	7.2%	45%	297%
	효성중공업	2,753	0.2%	-4.3%	11.6%	42%	657%
	HD현대일렉트릭	7,473	-0.7%	-13.4%	-22.6%	56%	1357%
	ABB	88,957	-12.6%	-15.6%	-17.1%	-2%	42%
	Schneider	119,674	-12.7%	-16.2%	-21.4%	-9%	30%
	WEG	31,590	-4.6%	-8.2%	-18.6%	15%	28%
	Crompton Greeves	2,478	-7.0%	-4.4%	-16.9%	17%	-12%
	TBEA	8,368	-1.8%	-0.9%	-5.8%	-22%	-20%
피팅	성광밴드	469	1.0%	-17.6%	6.0%	116%	185%
	태광	384	7.3%	-16.0%	20.7%	70%	115%
	하이록코리아	227	1.3%	-9.1%	6.3%	4%	54%
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	10,102	-5.3%	-14.3%	30.8%	36%	11%
	비메이치아이	357	-3.2%	-23.8%	7.6%	84%	175%
	S&TC	444	5.7%	-15.1%	35.1%	195%	416%
	DONGFANG	6,412	3.2%	4.2%	-2.8%	2%	22%
	BHEL	8,727	-0.8%	9.3%	-8.9%	-16%	279%
	MHI	54,472	-10.3%	4.1%	4.4%	78%	501%
	IHI	10,274	-8.9%	-12.6%	5.4%	151%	244%
	SIEMENS	160,317	-15.3%	-21.2%	-3.3%	6%	56%
	General Electric	177,916	-16.5%	-17.6%	-1.9%	7%	199%
	ALSTOM	9,281	-12.1%	-20.9%	-15.9%	40%	-6%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협								
철도	현대로템	7,378	-2.9%	13.0%	102.7%		165%	417%
	ALSTOM	9,281	-12.1%	-20.9%	-15.9%		40%	-6%
	Bombardier	5,356	-4.5%	-11.9%	-21.4%		22%	96%
	CNR	60,744	-1.5%	-4.3%	-6.6%		-22%	-12%
	CAF	1,433	-6.3%	-1.0%	11.1%		16%	31%
	CSR	25,692	-8.3%	-12.1%	-3.9%		8%	42%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1,562	5.8%	3.2%	8.1%		45%	59%
	KONE	28,477	-5.0%	-9.5%	3.9%		14%	2%
	THYSENKRUPP	5,456	-11.1%	-11.9%	103.6%		52%	16%
	MITSUBISHI ELEC.	36,418	-10.9%	0.6%	-6.4%		7%	87%
	HITACHI	95,341	-17.1%	-17.7%	-23.7%		10%	159%
	SHANGHAI ELEC.	14,273	-1.5%	-8.3%	-7.7%		7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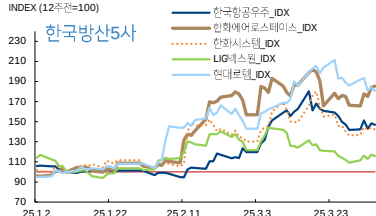
공작기계 / 기타								
공작기계	화천기계	42	1.3%	-4.0%	6.2%		-13%	-16%
기타	와이지원	126	2.6%	7.5%	7.0%		-3%	-37%
	S&T중공업	664	-2.5%	-13.6%	57.5%		68%	249%
	Amada	2,967	-11.4%	-8.7%	-12.9%		-21%	33%
	Moriseiki	2,425	-17.5%	-16.0%	-0.8%		-37%	64%
	Jtekt	2,129	-14.8%	-14.9%	-16.5%		-28%	13%
	Okuma	1,350	-18.2%	-10.9%	-12.4%		-16%	24%
	Makino	1,934	-1.6%	0.2%	23.2%		85%	205%
	Gildemeister	3,969	-1.1%	0.0%	1.1%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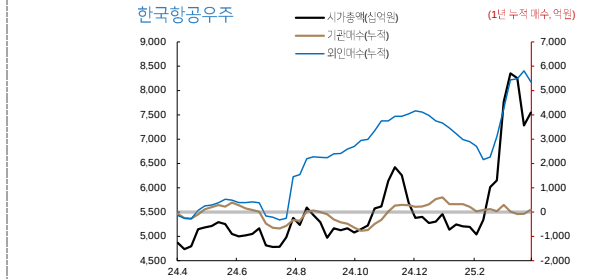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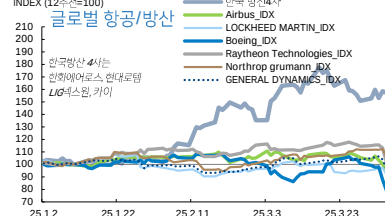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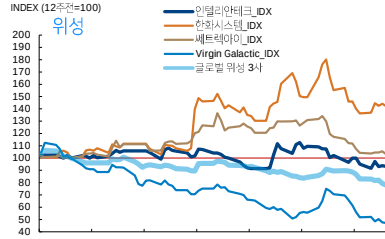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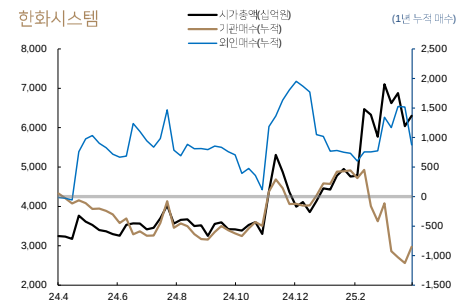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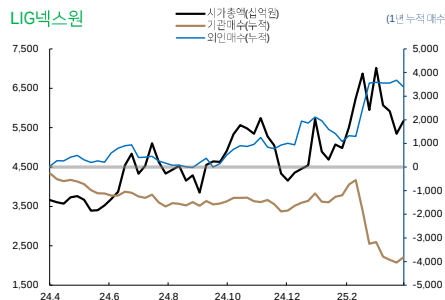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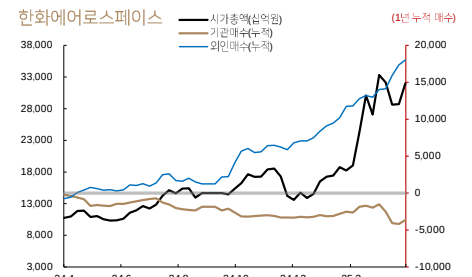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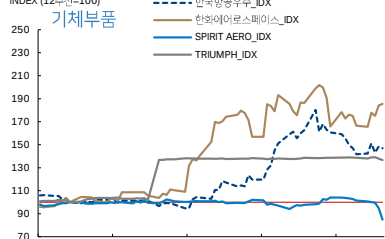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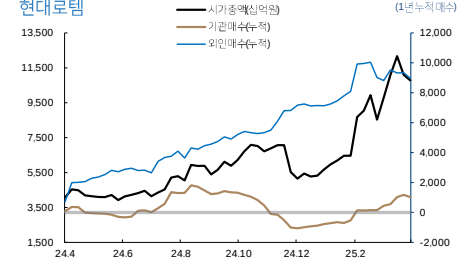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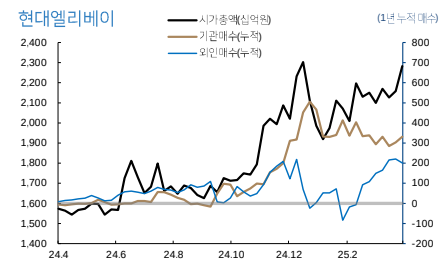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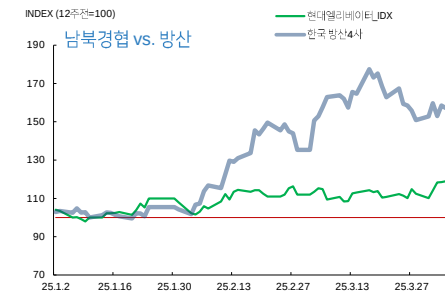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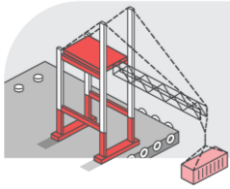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 방산 vs. 경험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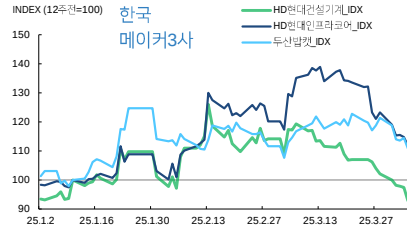
2025.04.06 [766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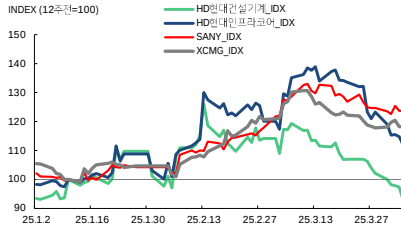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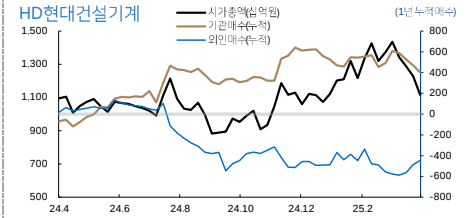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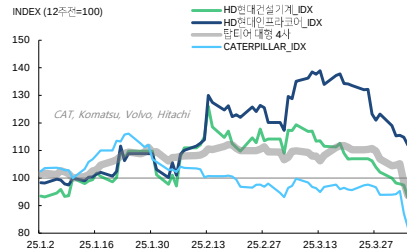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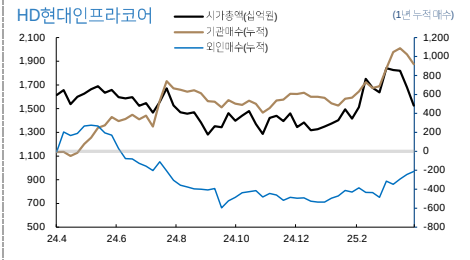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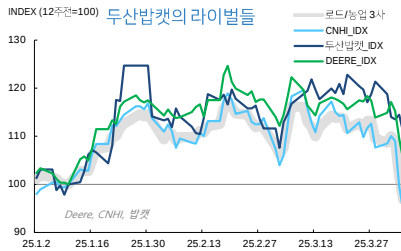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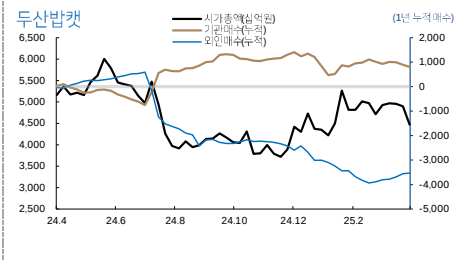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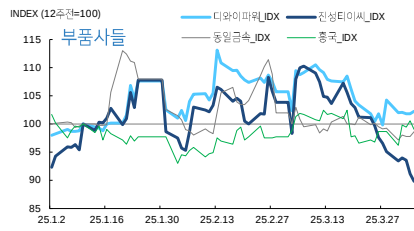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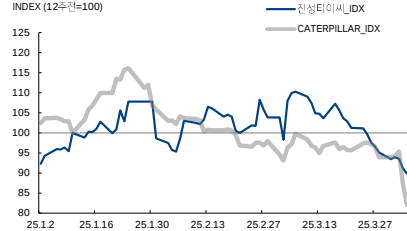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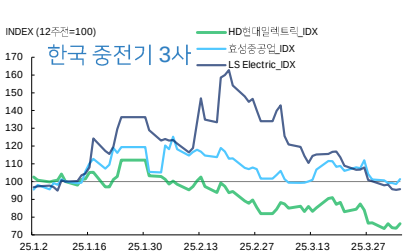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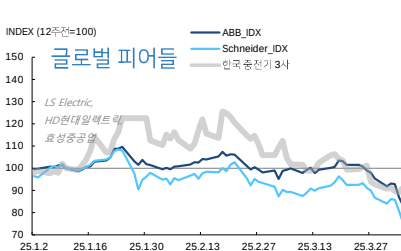


중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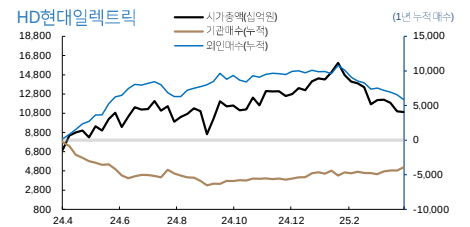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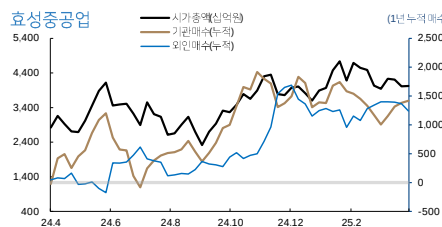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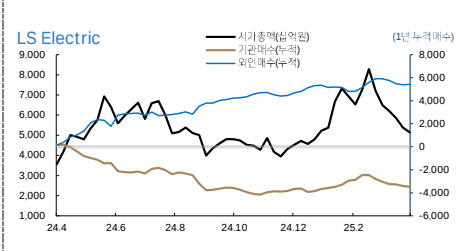
▶ 한국 중전기 3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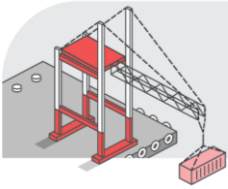


▶ 글로벌 피어 2사



중전기 수급





다올 기계 Chart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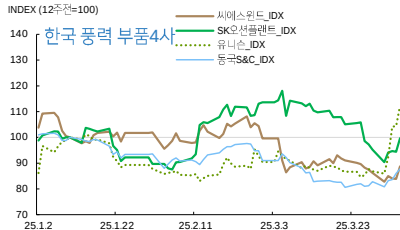
2025.04.06 [766호]

DAOL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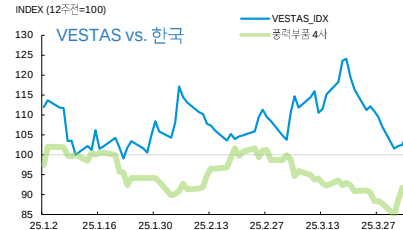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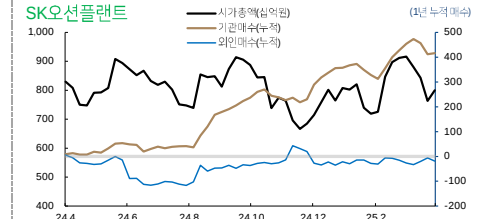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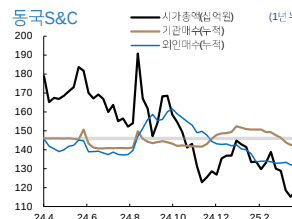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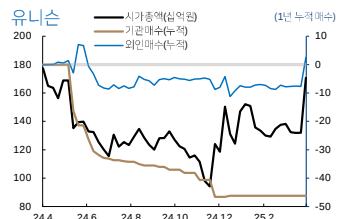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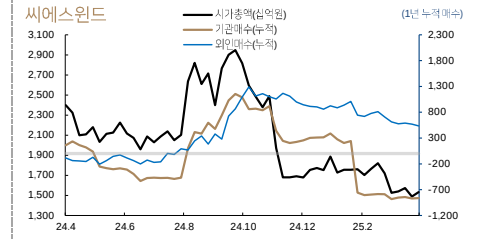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4사



▶ 한국 풍력 vs. VEST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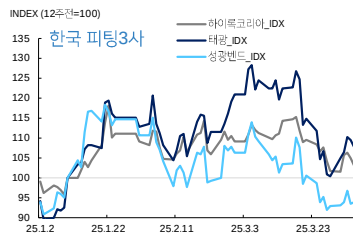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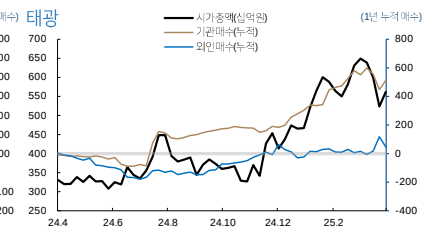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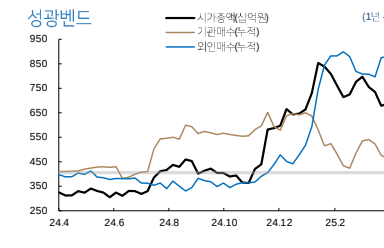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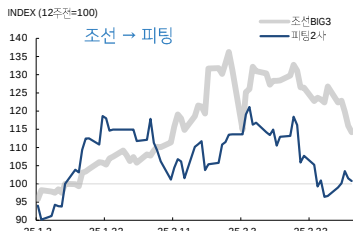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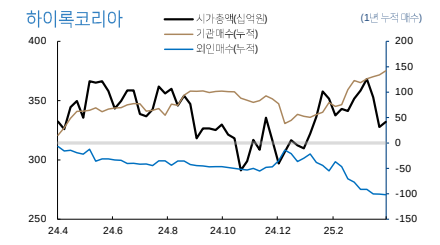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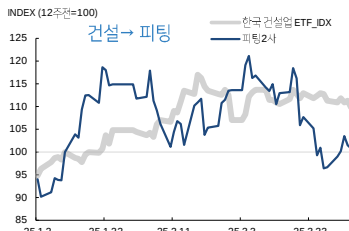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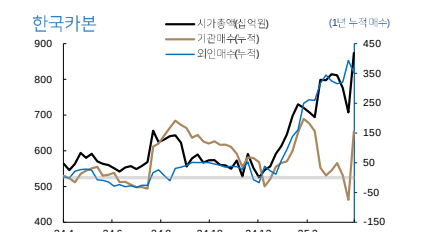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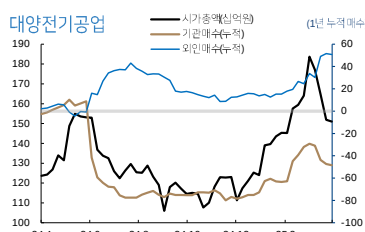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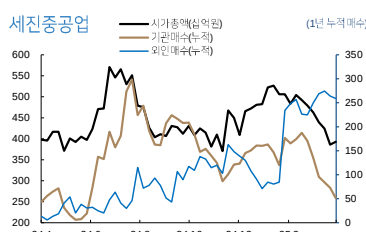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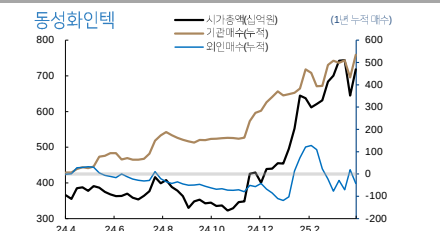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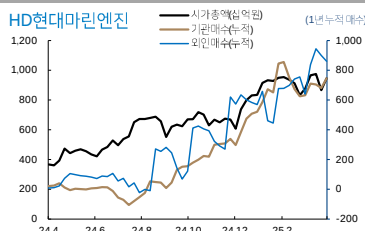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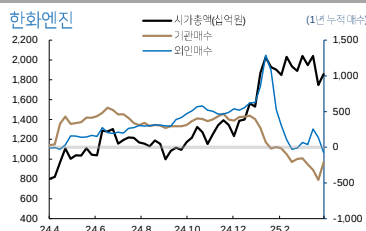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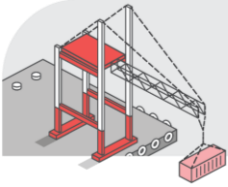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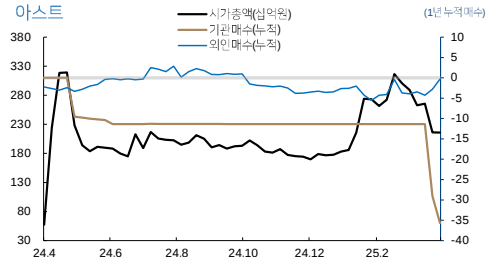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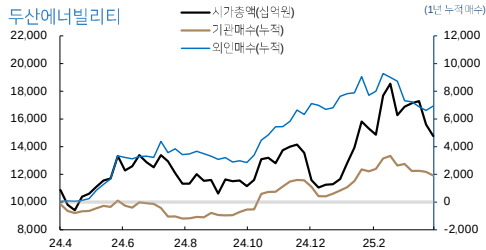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기타 기계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 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83.4% **HOLD : 16.6%**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